



양현종 ML행? 설마...

ML 신분조회 받은 날 KIA와 첫 협상

양현종 “최고선수 대우”...KIA “구단안 제시”
양측 의견차 불구 잔류 협상 전력 기울일 방침

KBO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MLB사무국으로부터 12일 양현종, 손아섭, 정의윤 등 3명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 받고 양현종은 KIA 타이거즈 소속이며 손아섭, 정의윤은 FA(프리에이전트) 신분으로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신분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KBO가 MLB사무국에 신분을 통보한 13일, 광고통합도 KIA는 양현종과 첫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실무자인 KIA 구단 관계자는 “양현종 선수와 구단 사무실에서 잠시 만나 처음으로 계약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고 전하면서 “일단 구단에서 마련한 안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면 어땠겠느냐’는 선에서 양현종 선수에게 의사를 물어봤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봉협상에서 큰 목소리를 내본 적이 거의 없는 양현종이지만 이날은 “최고 선수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구단 측에 좀 더 성의를 보여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존심은 세워달라는 주문이었다. 양측은 서로 생각을 정리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KIA는 지난해 FA 자격을 얻어 해외무대에 노크하다 돌아온 양현종과 1년짜리 계약(연봉 22억5000만원)을 했다. 대신 1년 후 재계약 협상을 하되, 양현종이 해외나 국내 타구단 입단을 원할 경우 조건 없이 방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현재 서로 결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양현종은 6일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시상식장에서 일찌감치 “KIA 팬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년에 KIA 유니폼을 입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KIA가 13일 처음 답변을 한 것이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날 MLB사무국에서 신분조회를 요청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KIA 구단은 이에 대해 “양현종 선수에게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다.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양현종 선수와 협상을 할 뿐이다”고 말했다.

양현종 측도 비슷한 반응이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사는 “시즌 도중 복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양현종 선수에게 관심을 보여 왔다. 그래서 당시 올 시즌 후 어떤 신분이 되는지 얘기를 해준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구단이 MLB사무국을 통해 신분조회를 요청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MLB사무국의 신분조회와는 상관없이 양현종과 KIA는 잔류 협상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 시즌 20승을 달성하고 한국시리즈에서 맹활약하며 KIA 우승을 이끈 양현종은 프리에이전트(FA)가 아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리그와 국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이 또 한번 이어지고 있는 사이 KIA는 잔류 협상을 시작했다. 스포츠동아 DB



신동열의 3품

- 1 도쿄돔 경험 전무 2 미끄러운 공인구
- 3 일본·대만의 협공...대표팀 오늘 출국

신동열 감독의 행복한 시간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출정이고, 전정이다.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2017’에 나선 국가대표팀이 13일 고척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훈련을 했다.

14일 아침 일본 도쿄로 출국한 뒤 이틀날 도쿄돔에서 적응 훈련을 갖는다. 그리고 16일 일본전, 17일 대만전을 치른다.

마지막 국내 훈련을 끝낸 신 감독은 “자신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웃었다. 선수단 전원이 만 24세 이하 혹은 KBO 3년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됐다. 대표팀의 객관적 전력은 떨어진 다. 경험지도 적다. 신 감독의 말처럼 전체 엔트리 25인 중 투수를 12명으로 채운터라 야수진에 부상자가 발생하면 대응도 쉽지 않다.

신 감독은 넥센, 경찰청과의 세 차례 평가전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벽했다곤 볼 수 없다”라고 평했다. 선수들의 부상을 우려해 뛰는 야구를 자제했다. 작전도 거의 구사하지 않았다.

투수들도 컨디션 점검에 중점을 뒀다. 무승부 상황에서 발생할 승부처기 연습도 하지 못했다. 신 감독은 공인구 애기도 꺼냈다. 미즈노 볼이 다소 미끄러워 포크볼 던지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투수가 APBC 대회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수들 중 도쿄돔에서 뛰었던 선수가 한 명도 없는 현실도 내심 걱정이다.

그래도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다했다. “아직은...”이라며 공개를 미뤘지만 투수 투입 순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 타선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정했다. 평가전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을 보여준 이정후(넥센)는 테이블 세터 포진이 유력하다.

개막전에서 일본과 맞붙는 한국은 대만의 첫 경기 대상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대만 모두 에이스를 한국전에 낼 수 있는 환경이다. 신 감독은 “일본은 좋은 투수들이 많다. 대만은 천관위가 한국전에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본을 상대로 타자들이 어떻게든 점수를 뽑아내는 것을 관전으로 봤다. 저득점 경기를 예상한 것이다. 초반이라도 기회가 오면 번트 등 스몰볼을 구사할 것이 유력하다. 적은 기회에서 어떻게 효율적 야구를 하느냐가 승리의 열쇠다. 대만전은 천관위를 얼마나 빨리 끌어내리느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천관위 다음 투수부터는 아무래도 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방망이에 감정이 있는 팀이니만큼 기세를 뺏기지 않 된다는 생각이 깊다. 미래를 보는 대외관론 해도 태극마크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 신 감독이다.
고척 | 김경준 기자 galzby@donga.com

일본대표팀, 세이부과 평가전 6-0 승리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17 개막전(16일)에서 한국과 맞붙는 일본 대표팀이 13일 미야자키에서 치른 세이부와 평가전에서 6-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불발자원 7명을 연이여 투입했고 6인타 2볼넷 삼진 5개 무실점을 기록했다. 타선은 11안타를 기록했다.

두산, 전 요미우리 3군 타격코치 캠프 초빙

두산은 13일 코치 고토 전 요미우리 3군 타격코치를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4일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 인스트럭터는 1991년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로 요미우리에 입단해 2005년까지 15년간 뛰었고 2006년 뉴욕 양키스 연수를 거쳐 2013년부터 요미우리 육성코, 3군에서 타격코치로 활동해왔다.

KIA, 챔피언스필드 투어 참가자 모집

KIA가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투어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장과 선수단 클럽하우스 등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 상품으로 KIA 홈구장과 선수단 버스에 탑승해 합평 챔피언스 필드로 이동, 선수들의 훈련을 참관하고 선수단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 등이 담겨 있다. 14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88억 방아쇠 당긴 kt “황재균 영입 위해 삼고초려”

기존선 된 황재균 계약...FA 협상 본격화

2018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다.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황재균(30)이 계약기간 4년 총액 88억원에 kt와 도장을 찍었다. 황재균은 원소속팀이었던 롯데와 수도권 연고 구단인 LG, 그리고 kt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나 결국 최종 행선지로 kt를 선택했다. 그가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kt로 마음을 굳힌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최대의 행선지 확정으로 향후 FA 시장은 어떻게 요동칠까.

● “수원의 스타가 필요해” kt의 끊임없는 구애

kt는 사실 황재균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결심했던 지난해 겨울 이전부터 끊임없이 영입 의사를 내비쳤다. 황재균 측에 수차례 만남을 제의하며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였다. 황재균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맺으면서 첫 만남은 불발 뒀지

만 kt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미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인연의 끈을 튼실하게 이어갔다. 황재균은 이런 kt의 끊임없는 구애 속에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재균이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입전에 뛰어 들었다. kt 임종택 단장은 “국내에서 개인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세 번이나 찾아갔다. 우리가 왜 황재균을 필요로 하는지, 또 우리 팀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진심으로 다가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팀이 프랜차이즈 스타 육성에 힘입은 것은 사실이다. 수원의 스타를 한명 만들고 싶었다. 황재균은 수원(현대)에서 처음으로 프로생활을 시작한 선수다.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기존선? 향후 FA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FA 시장은 황재균의 kt행이 결정되기 전까지 말 그대로 ‘정중동’의 상태였다. 롯데 문규현이 1호 계약을 맺으며 잔류했을 뿐 시장이 열린 이후 줄곧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주된 이유는 방아쇠를 첫 번째로 당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대형계약은 항상 ‘양날의 검’이다. 확실한 베틀로 원하는 선수를 사올 수 있으나 ‘FA 거품’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kt가 사실상 첫 번째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이제 구단들은 흔히 말해 ‘오버 페이스’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황재균이 발표금액 88억 원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느 정도 기존선이 그려진 상황이다. 황재균 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선수가 있다 해도 88억원을 훌쩍 넘기기는 쉽지 않다. 이미 지금 FA 시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88억 원에도 쫓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수 측에서는 황재균의 금액이 전혀 다른 의미의 ‘기존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폭풍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게 프로선수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이제까지는 대형계약이 유력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적정선을 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황재균의 계약으로 이른 바 ‘참고 사항’이 추가된 셈이다. 가령 해외 리턴파인 김현수가 복귀를 결심할 경우 88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육신 낼 수도 있다. 손아섭과 민병헌 같은 대형 FA 외야 자원들도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이대호 150억원 톱... ‘빅5’ 합쳐 531억원

kt는 13일 프리에이전트(FA) 황재균(30)과 4년 총액 88억원(계약금 44억원·연봉44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KBO리그 역대 FA 계약을 놓고 볼 때 총액기준으로 6위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다. 계약금은 일시불로 지급되지만 4년으로 나누면 매년 22억원 규모다. 황재균은 올해 초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하면서 플타입으로 빅 리그에서 뛴 경우 최대 310만 달러(약34억7000만원)를 받는 스포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황재균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한 마이너리그 연봉은 12만 5000달러(약 1억4000만원)였다.

황재균이 KBO리그에 복귀하면서 맺은 계약은 역대 6위에 해당되지만 보장액수로 환산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박석민이 2016년 NC와 맺은 역대 3위 선수인 총액 96억원 계약 중 보장액은 86억원이었다. 2017년 차우찬과 LG의 95억원은 전액 보장액수다. 2015년 볼티모어와 트레이드 형식으로 KIA에 복귀한 윤석민의 90억원도 보장 금액이다. 황재균과 kt의 계약은 옵션을 제외한 보장액수로 역대 5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분간 깨지기 힘든 역대 1위 계약은 올해 초 롯데로 복귀한 이대호가 받은 4년 총액 150억원

이다. 연평균 37억 5000만원에 이른다. 한 경기 평균 2600만원이 넘는 액수다.

역대 2위 계약은 2017년 우승을 위해 KIA가 최형우를 데려오면서 맺은 4년 100억원이다. 발표액수 외에 추가 옵션이 존재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보장액수만으로 한국프로스포츠 사상 최초 100억원 시대를 연 상징적인 계약이었다. 특히 KIA는 최형우를 위해 보상금 14억원을 추가로 삼성에 지급했고 보상선수도 강한올도 내줬다.

3위 박석민, 4위 차우찬, 5위 윤석민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황재균이 6위에 올랐다. 7위는

역대 FA(프리에이전트) 계약 톱6						
순위	선수	포지션	계약팀	계약년도	계약기간	총액(원)
1	이대호	내야수	롯데	2017	4년	150억
2	최형우	외야수	삼성-KIA	2017	4년	100억
3	박석민	내야수	삼성-NC	2016	4년	96억
4	차우찬	투수	삼성-LG	2017	4년	95억
5	윤석민	투수	KIA	2015	4년	90억
6	황재균	내야수	kt	2018	4년	88억

※ 발표액 기준
※ 이대호·윤석민·황재균은 해외 진출 후 복귀, 박석민은 옵션 10억원 포함

2105년 SK에 잔류한 최정의 총액 86억원, 8위는 지난해 SK와 김광현이 사인한 85억원이다. 그러나 김광현의 4년 계약은 재할기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맺어 사실상 3년 계약이라고 평가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